

# “후분양제 시행 위한 로드맵 만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감서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도입 등 통해 단계적 도입” 약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면서 “서울시와 L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착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고 말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77년부터 도입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히 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삐가 풀린 채 기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뀌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컸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됐다.

실제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2번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도 LH가 하는 공공 분양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

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 주장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권이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말 후분양제(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뉴시스



### 농어촌공 정읍, 지난 9월말 농업용수 공급 마무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에 따르면 정읍지역에 올해 현재까지 평균806mm(전년도 888mm)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읍시 29개 저수지의 10월 11일 현재 저수량은 71.7%인 2천7백만톤으로 평년 60%, 전년 52%에비 평년보다 11.7%, 전년보다 20%정도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주요저수지의 저수율을 살펴보면 섬진강 60.4%를 보이고 있으며 홍덕저수지 84%, 내장저수지 71.8%, 입암저수지 91.9%, 수청저수지 41%, 용산저수지 79%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도 7~9월 강수량이 404mm였고, 2017년도에는 7~9월 강수량이 560mm가 내려 저수량이 많이 소요

되는 7~8월에 전년보다 많이 내려 저수량이 절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초부터 급수를 시작하여 정읍시 10,039ha의 농경지에 공급된 농업용수 공급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작기 용수확보대책 수립 시행 ▲간이양수기와 송수호스 등의 한해장비 점검 ▲가뭄대책상함삼운영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영농과 종년농사를 달성하고 지난 추석연휴 전인 9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10월~3월까지 평년강우량이 296mm의 강우량을 보인만큼 평년 저수량 84% 이상은 확보될 것으로 보여 내년 봄 영농용수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익산 식품지원센터, 농업관련 연구기관 연계 강화

전북 익산지역으로 자리를 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기업유치 활성화와 클러스터 활성화 가속을 위해 농업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12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최희중 센터장을 주제로 익산시청 상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안정적인 기업유치와 상품개발, 수출 등 기업지원의 성공시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방안은 전북지역 농식품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

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은 물론 전북도농업기술원과 전북대·원광대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 전북지역 농식품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류를 확대한다.

지원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분야 공동연구개발사업 발굴은 물론 실용화, 시설·장비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중장기 공동연구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센터의 전문가 코디네이터 인력을 활용한 농식품 관련 기업의 애로기술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군산아동학대 폭력예방 교육사업 지원

#### 한국지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일조하고자 진행

한국지엠함마음재단(이하 함마음재단)이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의회와 손잡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일조하고자 군산지역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교육사업에 후원하여 군산지역 어린이 집 240개교 학부모 20,000여명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4일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교육 지원사업은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회, 비영리법인 전북자동차산업교류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지엠 함마음재단과 군산공장, 그리고 군산시가 함께 후원하게 된다.

이동우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은 “이번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사업”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기 아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군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정력을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하였다.

또한 정운모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의회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지엠 함마음재단과 군산공장에서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사업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지역 아동이 행복하고 즐거운 군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 전문가 초청(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으로 군산지역 아동학대 및 학부모 폭력예방 교육을 강의식으로 상세하게 진행하며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을 한층 높여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일조해 갈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관 기자

### 농어촌공 익산,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지속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정보기술 및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물관리 비용절감 및 용수배분의 합리화를 위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익산지사 관내 농업용수관

리자동화사업 구축현황은 수해면적 16,178ha의 36개 농업기반시설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춘포지구 원예작물배수개선사업으로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농업기반시설 14개소(중앙제어실 1개소, 배수장 2개소, 펌파부수문 11개소)에 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국유재산, 일자리 창출 지원

#### 김용진 차관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 도입”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해 새정부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캠프 인제개발원에서 열린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재산규모가 1000조원이 넘고, 토지 면적도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으로 보다 잘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국유재산을 주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새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과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를 도

입,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개제한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조달청, 캠프 등 국유재산 관계기관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 국유재산 담당자들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국유재산 관리 우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업무유공 표창 시상식도 진행했다. 관리 우수 기관은 국유재산대장 DB 전수정비 사업에 적극 협조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충북 영동군,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정보원 등 5개가 선정됐고, 개인표창은 국유재산 업무에 기여한 담당자 25명이 선발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